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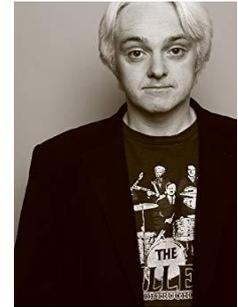
제목 : THE STRANGER TIMES SERIES 1, 2

가제 :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 시리즈 1, 2

저자 : CK McDonnell

출판사: Johnson & Alcock

장르 : 스릴러



* 스페인어 판 판권 계약

* 다수 제작사에서 영화화 제의

1권/ 출간일: 2021년 봄, 분량: 362 페이지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 (The Stranger Times)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지이다. 이 신문에서는 주로 기괴하면서도 재미난 사건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내렸다가 폴리아모리(다자연애) 연애를 하는 시끄러운 유령들 이야기하든가 데이비드 보위 영혼이 사우스 쉴즈 출신의 어리숙한 배관공의 몸을 빌려 레코딩 작업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 등 근래에 일어난 기상천외한 일들이 주요 뉴스 소재였다.

이 신문의 편집장인 빈센트 배네크로프트라는 작자는 원래 플리트 스트리트지에서 일할 당시엔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캔들 기사를 내기로 악명 높은 기자였다. 빈센트가 모든 걸 잃고 장엄하게 추락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빈센트는 이제 그저 성미 급한 술주정뱅이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편집한 신문에는 동네 얼치기 보다 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빈센트는 여전히 기사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는 적어도 내셔널 인콰이어러 신문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빈센트의 철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야기를 꾸며내진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모모 부인이 엘프들이 자신의 남편을 납치했으며 사실 확인된 근거 없이 특종이라며 제보를 하더라도 단지 '주장'만 담긴 기사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이다. 빈센트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기사는 쓸지 몰라도 기사 내용만큼은 정확한 사실 그대로만 보도했다.

한편 한나 윌리스는 바람난 남편 따윈 잊고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참이었다. 한나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단 한번도 스스로 살아 본적 없는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여자이기도 했다. 한나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력서에 적을 만한 일을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제대로 된 경력 하나 없던 한나는 험난한 구직 시장에서 분명 불리한

위치에 서있었다. 하지만 한나는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에 이력서를 낸 지원자 중 맞춤법 오류를 가장 적게 낸 두 지원자 중 한 명이었고 덕분에 보조 편집자 자리를 따냈다. 그러나 한나가 일을 시작한 첫 주 만에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는 위기를 맞게 된다. 신문사 사람들은 이제서야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사소한 일들이 실제로는 어마 무시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집장 빈센트와 직원들은 상상조차 해 본적 없는 어둠의 세력과 대면하게 된다.

2권/ 출간일: 2020년 12월, 분량: 미정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 직원들은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괴물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엔 아직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시기 같았다. 더군다나, 뾰족한 이빨에 망토까지 두른, 햇빛을 죽도록 싫어하는 뱀파이어 무리라니! 그 동안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에서 별별 희한한 기사를 쓰긴 했지만 뱀파이어가 실제로 존재할 리는 없었다. 뱀파이어는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명체들이 현실세계에 그것도 갑자기 우후죽순 나타난다는 말인가? 더 끔찍한 일은 진짜로 어떤 유명인이 목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는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때문에 영국 주류 언론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다들 혈안이 되어있었다.

고대부터 존재했다는 전설적인 괴물 집단인 포크와 파운더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열띤 관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자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를 주시하고 있었다. 파운더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괴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포크들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들의 일상 생활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마냥 싫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뱀파이어 하나가 더 스트레인지 타임스 건물 현관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오면서 일은 더 요상하게 흘러가게 되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롬 애버리는 오컬트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일들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남자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미친 듯이 피를 갈망하고 있었고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것도 부처같은 이해심을 가진 치과의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머지 않아, 도시는 여러 차례 공격을 받게 되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빈센트와 코는 무엇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있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서로 앞 뒤를 다뒤편하며 경쟁하게 된다. 한편 갑자기 괴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단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이들 모두가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데이팅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남성성이 가진 해로움이 이 모든 괴물들을 만들어낸 것일까?

<저자 소개>

씨케이 맥도넬 (CK McDonnell)은 베스트셀러 『The Dublin Trilogy』의 작가이다. 아일랜드 평론가들은 맥도넬의 작품을 가장 재미있는 범죄 소설, 화려한 코미디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제목 : THE SECRETS OF LOST STONES

가제 : 잃어버린 돌들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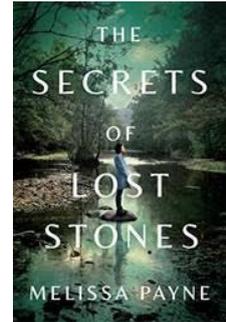
저자 : Melissa Payne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332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숨겨진 비밀과 용서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베스트 셀러 『Whisper Me This 』의 저자 케리 앤 킹**

겨우 오후 세시가 넘었을 뿐인데 길 위는 달리는 차 한 대 없이 황량하기만 했다. 당장 차에 연료도 넣어야 하는데 주유소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 위에는 안개마저 자욱해서 목적지인 파인 호수 마을에 언제쯤 도착할지도 알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떠나기로 한 결정은 순전히 충동적인 결심이었다. 주인공 서른 두 살 제스는 모든 걸 잃었다. 직업도 아파트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비극적인 사고로 겨우 여덟살밖에 안된 아들 찬스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싱글맘이었던 제스에게 찬스는 인생의 전부였다. 추억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 지쳐가고 있던 제스는 그녀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작은 산악 마을 파인 호수 (Pine Lake)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겨우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스의 차 앞에 순간적으로 남자아이의 모습이 스쳐갔다. 놀란 제스는 차를 멈춰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상점들은 다 문이 닫혀 있었고 남자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제스는 소년을 찾아 다니다가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는 한 가게를 발견 한다. 그 어두침침한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아까 그 소년 같아 보이기도 했다. 가게에서는 곧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제스는 홀린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제스의 시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고 가게의 주인인듯한 노년의 여성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고 머리카락은 타오르는 불길같은 빨간색이었다. 좀 기괴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제스는 그 루시라는 노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러나 평범한 수요일 낮인데도 모든 상점들이 휴업중이고 이 노인만 가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게 어쩐지 좀 이상했다. 루시는 긴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이래 온 마을 사람들이 얼음이 녹는 것을 구경하러 가는 바람에 온 마을이 이렇게 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스가 살고 있던 바쁜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루시는 사실 자신에게 치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 가사 도우미를 구할 겸 그가 요양원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으니 그 일을 자기가 하면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시는 비록 몸과 기억력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뛰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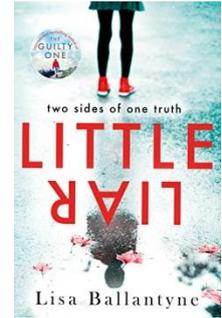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루시는 제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루시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얼마 후 둘은 길을 걷다 우연히 스타 (Star)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스타는 위탁 가정에서 몰래 나와 길 위를 떠돌고 있었다. 위탁 부모들은 열다섯이나 되는 스타 같은 아이를 대놓고 꺼려했다. 게다가 스타가 그 집에서 시계까지 훔친 것이 들통 나는 바람에 스타는 더 큰 곤란에 빠졌고 결국 가출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루시는 집에 돌아와 제스에게 봉투 하나를 스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스타는 다시 만난 제스에게 처음엔 신경질적으로 굴었지만 막상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난 뒤에는 루시의 따뜻한 편지에 감동 받게 되었다. 그 편지 안에는 돈과 편지뿐만 아니라 파인 호수 마을로 가는 티켓까지 있었다. 놀랍게도 루시는 스타의 슬픈 과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스타를 돌봐주고 싶다고 했다. 바로 그날 밤 어떤 과한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스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스타는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루시의 빅토리아식 큰 저택에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루시가 이렇게 사람들과 모여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오랜만이였다. 제스의 엄마는 제스가 기어코 싱글맘의 길을 택하자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 후로 오랫동안 제스는 홀로 살아왔다. 제스와 스타 둘에게는 여태껏 홀로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제스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스타 역시 어린 시절 친구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스는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자살 시도까지 했던 아픔을 가진 소녀였다. 제스와 스타는 어느 새부턴가 서로가 가진 아픔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루시의 대저택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평온하기만 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가끔 깜빡 하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루시는 언제나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고 8년 전에 있었던 스타의 친구의 사고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아무리 스타가 루시에게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냐고 물어도 루시는 그저 신문에서 보았다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게다가 집안에는 손가락 모양 같기도 하고 쥐 모양 같기도 한 이상한 돌들이 굴러 다니고 있었다. 제스가 돌을 밟고 놀라 주우려고 다가가면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뿐만 아니라 제스와 스타 앞에 빨간 트레이닝 복을 입은 어린 소년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고는 했다. 그 소년은 마치 화해와 희망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다. 제스는 과거의 유령에서 도망치고 있는 길 잃은 영혼이 자신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스와 스타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한다. 과연 그 소년은 누구일까? 루시는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걸까? 마을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루시는 정말 마녀라도 되는 걸까? 걸으려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하고 또 다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멜리사 페인은 꾸준히 결혼과 모성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학대 및 방치 된 어린이들을 돕는 치료 센터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

제목 : LITTLE LIAR
가제 : 리틀 라이어
저자 : Lisa Ballantyne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현재 아마존 베스트 셀러 1위

* “소설 속 인물들이 오랫동안 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작가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소재를 가져와 신중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베스트셀러 작가 제니 키타나

열두 살 안젤라 퍼니스는 언제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소녀였다. 엄마와 심하게 말 다툼을 했던 그 날 이후 안젤라는 날이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친구들은 이런 안젤라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공개적인 자리에서 안젤라에게 면박을 주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젤라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결국 안젤라는 어느 날 폭력 사건에 휘말려 정학까지 당하고 말았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안젤라는 결국 극단적이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이어진 안젤라의 충격적인 고백은 이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흔들여 놓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젤라를 둘러 싸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손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안젤라의 피는 아니었다. 이 싸움을 시작한 건 안젤라가 아니었다. 하지만 안젤라는 이번만큼은 싸움을 건 재스민에게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다. 재스민은 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고 안젤라는 재스민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곧 달려왔다. 누가 봐도 안젤라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안젤라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안젤라는 얼마 전 갈라선 엄마 아빠도,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다 싫었다. 안젤라의 엄마 도나는 안젤라가 아무리 원가를 잘 해내도 안젤라에게 칭찬 한번 해준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은 모든 게 다 안젤라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안젤라의 정학 따위에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다. 엄마는 딸이 정학 당한 일보다는 이 소란 때문에 일찍 퇴근 한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안젤라는 아빠가 떠난 뒤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했고 달라진 집안의 공기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안젤라는 어느 새부터가 자기 안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다. 안젤라는 자살시도도 하지만 다행히 살아난다. 엄마는 여전히 안젤라가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젤라는 엄마에게 상상도 못한 일을 털어놓았다. 안젤라가 학교 연극 담당 선생님께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일이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안젤라 엄마는 그날 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다.

한편 닉은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간이 배우로도 활동했고 프리랜서 연극 교사로 일하면서 나름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제 곧 열흘 뒤면 학교에서 연극이 열릴 참이었다. 비록 안젤라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격적인 태도까지 보이긴 했지만 연극의 재미를 통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아내와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녁이었다. 아홉시가 넘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초인종 벨이 울렸다. 현관 문 앞에는 경찰관 두 명이 서 있었다. 수사관은 먼저 닉에게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있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닉은 심장만 미친 듯이 뿔 뿔 머릿속은 하얘졌다. 닉은 경찰관들에게 노트북과 핸드폰을 제출했다. 경찰 측에서는 그가 혹시 아동 포르노를 갖고 있거나 그런 영상들을 본 흔적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닉은 망연자실했다. 아동포르노라니, 자기가 소아성애자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날 밤 이후 닉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안젤라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다. 닉이 안젤라에게 무대 뒤에서 체육관용 매트리스를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닉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닉은 이 진술에 맹렬히 반박했다. 닉은 연극 수업에서 흔히 행해지는 ‘신뢰 쌓기’ 활동 중 하나로 안젤라에게 그런 부탁을 했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닉은 그저 관심에 목말라 있는 학생인 안젤라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닉은 조사를 받고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닉의 아내 마리나는 과연 남편을 계속 믿어야 할지, 남편이 정말로 결백한 것인지 확신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나는 직업인으로서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애썼고 닉 역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안젤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말썸만 부리던 여자애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닉이 본 포르노 영상 기록들을 조사하다가 닉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상물을 꾸준히 보아왔던 점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겨우 열두 살 밖에 안된 안젤라가 임신했다는 사실마저 밝혀졌다.

안젤라는 자신의 임신과 닉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건의 연루된 사람들의 삶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닉은 끝끝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런 닉에게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팽팽한 긴장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소설이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결말을 알기 전까지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 소개>

리사 발렌틴 (Lisa Ballantyne)은 그녀의 소설 『 Guilty One 』 에드가 어워즈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또 다른 저작 『 Redemption Road 』 은 USA 투데이의 베스트셀러였다.

제목 : LOVE AT FIRST LIKE

가제 : '좋아요'를 누르자 시작된 사랑

저자 : Hannah Orenstein

출판사: Atria

발행일: 2019년 8월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로맨스



별 소득 없는 데이트를 끝내고 바에 홀로 남은 엘리자는 무심히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던 엘리자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전 남자친구인 홀든이 약혼을 했다는 소식을 본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가 약혼이라니! 엘리자는 서둘러 사진에 태그 된 홀든의 약혼자 페이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엘리자는 사진 속 페이의 왼손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보자마자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는 이제는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연애의 패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쯤은 사실 별 거 아니었다. 엘리자는 동생 소피와 함께 브루클린에 있는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모든 보석이 어차피 엘리자 것이었으니 다이아몬드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자는 홀든의 약혼 소식에 속이 뒤뜰렸고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대단한 반지인지 궁금한 마음에 페이의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해버렸다. 실수로 그 사진에 '좋아요'버튼을 누른 것이다. 엘리자는 곧장 자신의 가게로 달려가 금고를 열고 3캐럿짜리 반지를 왼손가락에 꼈다. 그리고 가게 홍보용 계정이자 개인용으로도 쓰고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지 낀 사진을 올리고 약혼과 관련된 낮간지러운 해시태그도 장난 삼아 달아보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기분 풀이용이었고 최종 단계에서 업로드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동생 소피였다. 엘리자는 혹시 간밤에 누가 죽었나 하는 생각에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소피는 대체 어제 인스타그램에 무슨 사진을 올린 거냐고 따지듯 물었고 엘리자는 놀라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어제 찍은 반지 사진을 모르고 올린 것이었다. 만 사천 명이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고 오백 개나 되는 댓글들이 올라와있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핸드폰을 보니 인스타그램 알람이 계속 울려대고 있었고 부재중전화도 여러 건 와있었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엘리자가 진짜 약혼했다고 믿고 있었고 행복해 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들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엘리자는 결혼을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이 너무 우습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엘리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사진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어떤 결혼 전문 블로그에서 엘리자와 그녀의 약혼자 '미스터리 남'에 대한 포스트를 올린 것이다. 그 블로그의 유명세 덕분에 엘리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매장 수익에 비해 영 신통치 않았던 온라인 물의 수입도 단 하루 만에 신기록을 기록했고

엘리자의 샵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팔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미스터리 남과의 약혼 소식이 사업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엘리자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SNS의 위력을 맛본 엘리자는 그 사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처음엔 사진을 내리라고 주장했던 소피도 엄청난 매출량을 보더니 엘리자에 생각에 바로 동의했다. 어린 시절 엘리자가 동경했던, 보석 가게 주인 헬렌의 말이 맞았다. 보석은 디자인만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었다. 보석에는 고객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어루만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야 했다.

가게의 분위기는 훨씬 달라져있었다. 약혼을 앞둔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엘리자의 사진을 보고 몰려들었다. 엘리자는 결국 이 쇼를 진짜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잡지사, 결혼업체전문사이트, 블로거들에게 자신의 약혼 이야기를 메일로 보냈고 원하면 기사를 내도 좋다고까지 말했다. 엘리자는 대학시절 친구인 카르멘을 만나 이 가짜 약혼 사건을 다 털어놓았다. 카르멘은 이제 가짜 약혼남을 만들 차례라고 결론 짓고 가짜 약혼남 후보를 찾아보자고 했다. 엘리자는 카르멘이 선별한 여러 남자들을 하나씩 만나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때였다. 피로에 지친 엘리자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엘리자가 앉아 있던 바 테이블 바로 가까이에서 혼자 진 토닉을 홀짝이고 있던 블레이크라는 남자였다. 블레이크는 엘리자가 캐스팅을 위해 배우들을 만나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역할을 맡을 배우를 찾고 있는 지 물었다. 엘리자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블레이크 역시 엘리자처럼 주얼리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엘리자는 블레이크처럼 매력적인 남자에게 굳이 진실을 말해서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저 곧 있을 친구의 결혼식에 데려갈 남자를 찾고 있다고 둘러대고 말았다. 블레이크는 인스타그램의 '인'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였다. 엘리자는 블레이크가 자신의 가짜 약혼남으로 안성맞춤인 남자라고 생각했다.

엘리자는 처음으로 멋진 화장에 화려한 옷까지 차려 입고 잡지 사진까지 찍게 되었다. 그녀는 잡지사 기자의 아슬아슬한 질문에 신중히 답했고 인터뷰 역시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블레이크와 첫 데이트 약속까지 잡았다. 엘리자는 블레이크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리자는 더 이상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엘리자는 '가짜 약혼 상태'였다. 혼란스러워하는 엘리자에게 소피까지 돈 문제로 엘리자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하고 엘리자의 거짓말은 통제불능 상태에 이른다. 엘리자는 이 거짓 쇼를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걸 다 고백하고 현실에서 진짜 사랑을 쟁취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뉴욕을 배경으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연애, 결혼과 같은 현실적인 주제를 다룬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한나 오언슈타인 (Hannah Orenstein)은 스물 한 살에 데이트 서비스 회사에서 최연소 종매인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는 엘리트 데일리지의 데이트 지면 담당 편집자이다.

NON-FICTION

제목 : HISTORY OF THE WORLD IN FIFTY DOGS

가제 : 역사 속 강아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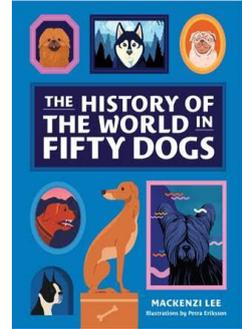
저자 : Mackenzi Lee

출판사: Abrams Image

발행일: 2019년 10월 1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역사



*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역시 우리와 함께 했던 개들의 이야기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동물은 바로 ‘개’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반려견까지 미라로 만들었고 한 인도 전설에 따르면 어떤 왕은 개는 내세로 함께 갈 수 없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은 절대 사후 세계로 가지 않겠다고 집념을 부렸다. 개는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동물이었고 지금은 단순히 동물의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의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개를 사랑하는 만큼 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다. 개는 수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개들만의 고유한 역사와 인간의 이야기가 있다. 이 책은 개와 관련된 역사와 신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역사 광이었던 저자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개와 관련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누군가는 개들과 역사가 과연 무슨 상관이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인류의 삶에서 개들이 수행했던 다양한 역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에서 개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개들은 시대별로 인간을 위한 반려동물, 동반자, 사냥꾼, 일꾼, 보호자 등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질병을 옮기는 해로운 동물, 실험용 동물이기도 했다. 인간과 개가 함께한 긴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개들을 신성이 여기거나 두려워하기도 했으며 미워하거나 사랑하기도 했다. 저자는 개들과 그들의 시대별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귀여운 밌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잠시나마 모두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말한다. 대신 그 개들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개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 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항상 개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순수한 생명체이지만 우리 역사는 결코 개들에게 늘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때때로 우리 인간들은 이런 개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고 무심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인간이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개에게 맡기기도 했다. 저자는 이 어두운 이야기를 이 책에 수록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우리 역사에서 개들이 했던 역할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생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이 책에 실었다고 설명한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 개들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

이 책은 중국, 인도,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등장하는 신화와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기르게 된 강아지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는 것을 도와준 개, 최초로 우주에 간 개 이야기부터 어떻게 코기가 영국 왕실의 상징이 되었는지까지 역사적 사실과 얽힌 흥미로운 개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와 인간이 함께 해온 세월을 독창적인 삽화들과 재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목차 >

- 개 길들이기: 가장 악명 높은 D.O.G 에 관한 소개
 - 이집트어로 찾기: 최초로 이름이 기록 된 개
 - 멕시코칸 헤어리스: 그 개는 당신을 지하세계로 인도 할 것이다.
 - 중국 신화 속 개, 판추가 생령을 만들어 냈다.: 중국 신화 속 조상
 - 아르고스, 오디세이의 충직한 개 : 서양 문학 속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죽은 개
 - 모든 개는 천국으로 가야한다. : 유디리스티라 왕과 개
 - 위대한 페리타스: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개
- (이하 생략, 장 구분 없이 소제목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매켄지 리 (Mackenzi Lee)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이지 2018년 스톤월 북 어워드 수상작인 『The Gentleman's Guide to Vice and Virtue』 의 저자이다.

제목: UNDERSTANDING HIEROGLYPHS

가제: 상형문자 읽기: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상형문자에 대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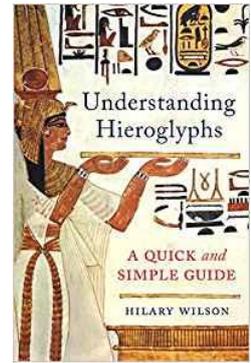
저자: Hilary Wilson

출판사: Michael O'Mara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192페이지

장르 : 인문



*** 이집트 고대 상형문자에 얽힌 재미난 신화와 함께 상형문자를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읽는 책**

누구나 한번쯤은 신비로운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대해 매력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상형문자로 화려하게 새겨진 조각, 부조 및 그림 등 이집트의 수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 할 수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서 그 아리송한 고대의 언어를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책은 고대 문서 및 박물관 전시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형문자들을 직접 예로 가져와 수백 가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이집트 고대 문명의 비밀과 아름다운 상형문자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싶은 독자라면 당연히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50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형 문자는 미지의 언어였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집트의 위대한 사원과 종교적 건물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분명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상형문자에 놀라운 비밀과 신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세 영국인들은 이집트가 신비와 마법이 가득한 땅이라고 상상했다. 당시 많은 유럽인들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온갖 미스터리와 신비로운 연금술과 연관 지었다. 그들은 유사 과학을 신봉하며 철학자의 돌로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던 연금술에 대한 열정 덕분에 화학과 과학이 발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과학 용어들이 이집트어에 뿌리를 두게 되었다. 또한 어떤 철학자들은 상형문자로 적힌 글들을 통해 고대의 지혜와 잊혀진 진실을 찾고 싶어했다. 종교학자들 역시 상형문자들의 내용을 해독해 성서에 적힌 이야기들과 직접 대조해보려고 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성서 속 위대한 인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일부 탐욕적인 학자들은 상형문자를 해독해서 숨겨진 보물의 비밀을 밝혀내면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될 거라는 허황된 꿈에 빠져있기도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형 문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흔히 그 장식적인 기능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상형문자 역시 일반적인 다른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문자이다. 또한 상형문자는 그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직설적이고 평범한 언어이기도 하다

학자들이 상형문자를 본격적으로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문구들이 신이나 왕들의 이름 혹은 특정 직책을 나타내는 직함이거나 간단한 공식과 기도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카르나크

신전과 왕의 계곡에 있는 무덤처럼 가장 유명한 건물과 비문에도 왕과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날짜와 같은 숫자를 포함해 이름, 직함, 간단한 표현 등은 이집트 고대 유적 비문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문자들이고 상형 문자 용어들 중 가장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저자는 아마추어도 쉽게 기본적인 단어와 표현을 익힐 수 있는 이러한 비문들을 통해 독자들이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형문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고대 이집트 문화 이야기와 신화를 통해 더 풍부한 배경지식과 더불어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소개>

- 제 1장.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 제 2장. 사적인 이름들
- 제 3장. 충성심
- 제 4장. 장소에 깃든 정신
- 제 5장. Be a Scribe
- 제 6장. 관료집단
- 제 7장. 사제 집단 .
- 제 8장. 진실의 장소에 모인 하인들
- 제 9장. 숫자세기
- 제 10장. 시간 보내기

<저자 소개>

저자 힐러리 윌슨 (Hilary Wilson)은 영국 사우스샘프턴 고대 이집트 학회장이자 『Egyptian Food and Drink』, 『People of the Pharaohs』, 『Egyptian Woman』와 같은 고대 이집트에 관한 여러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제목: BUILDING BETTER IDEAS

가제: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회의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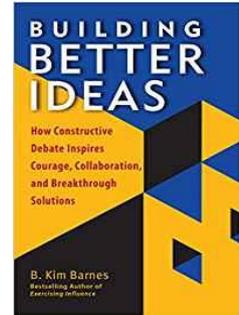
저자: B. Kim Barnes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9년 10월 22일

분량: 192 페이지

장르: 경영



***조직 혁신의 열쇠, 팀원들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회의의 기술에 관한 책.**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새 토론을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는 버리고 별로 매력 없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자 B. 킴 반스는 팀원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없애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회의에서 오히려 훌륭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묵살되거나 공격받는 일이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보다는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결국 나쁜 아이디어만 계속 살아남게 되고 그 결과는 엉망인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순환을 멈출 방법이 있다. 저자는 먼저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고, 토론을 통해 함께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 속에 있는 예시들을 통해 팀원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일깨우고 최상의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먼저,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팀원들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첫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로, 인간은 겉으로는 냉철해 보이지만 사실 조직 내 정치적 상황, 집단에 대한 충성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의 건설적인 토론을 방해한다. 저자는 다음으로 건설적인 토론이란 무엇인지, 건설적인 토론의 조건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건설적인 '토론 (debate)'이라는 단어에서 토론은 논의 (discussion)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논의는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토론은 처음부터 어떤 주제에 대해 당연히 찬반 여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대화의 방법이다. 따라서 건설적인 토론은 다양한 개인 및 그룹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첫 째, 모든 팀원들이 감정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신념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셋째,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토론을 이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경우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개인적인 동기나 성격이 아닌 아이디어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팀원들은 조직 내 정치적 압력과 집단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략적 목표에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저자는 성숙한 의사 결정 방식을 통해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고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정적인 결과를 훨씬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당장 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해도 될 만큼 알찬 워크북으로 구성 되어있다. 직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방법에 관한 세세한 설명과 실전 연습과제를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소개>

머리말: 왜 우리는 “회의 이후의 회의”를 해야 할까?

제1장.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을까?: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한 이유

1. 건설적인 토론이란 무엇일까?
2.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방법과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은?
3. 권력, 공포, 무관심, 그룹 사고: 대체 왜 별로인 아이디어가 통과 되는 것일까?

제2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건설적인 토론하는 법 배우기

4.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 입문
5.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하기
6.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7. 관점 살펴보기
8. 도전적인 일

(이하 생략, 총 10장 및 3 편의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저자 B. 김 반스 (B. Kim Barnes)는 조직 학습 및 개발 회사인 Barnes & Conti의 CEO이다. 반스는 경영, 리더십 및 조직 개발 분야에서 40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목 : THE LADY'S HANDBOOK FOR HER MYSTERIOUS ILLNESS

가제 : 희귀병과 싸우고 있는 당신을 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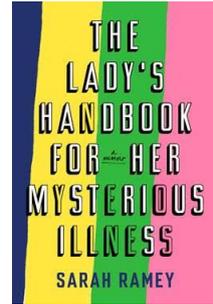
저자 : Sarah Ramey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20년 3월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건강



*** 이 책은 의사들조차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의문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런 환자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 첼시 클린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주기가 갑자기 불규칙 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거나 혹은 식습관 문제라고 돌려대기만 할 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 몸에서는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환자는 영영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끄끙대며 버텨야 한다. 이 책의 저자 사라 라미 역시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여성 질환 때문에 고통받았던 수 많은 여성들 중 한 명이다. 대학시절부터 발병한 사소한 질병이 나중에는 그녀의 일생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녀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의사들은 이 병은 그저 저자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저자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들의 진단이 엉터리였음을 밝혀냈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늘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그저 한 개인이 자신의 고단했던 일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이 아닌 이름조차 모르는 병 혹은 다른 병으로 오인되기 쉬운 애매모호한 질병 때문에 고통 받는 수백만의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여성들이 흔히 겪는 증상인 섬유 근육통 및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라임 병, 만성 통증 등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결코 여성이 예민해서라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질병의 실체를 알아내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은 저자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저자는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현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 새롭게 분석한다.

저자는 자신의 병과 싸우며 대체 왜 수많은 여성 질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병'이 되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질병들은 일반적인 질병들과는 달리 현미경으로 들여보거나 일반적인 검사로 알아 낼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혈구 수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걸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여성들이 호소하는 만성 통증, 피로 및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증상은 다른 질병의 증상과 쉽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도 가벼운 증상이나 한낱 염사로 넘기기도 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여성 질환 연구는 연구 기금을 얻기도 매우 어려운

분야이고 때문에 여성 질환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여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다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통 같은 증상만으로는 여성 질환을 명확하게 진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상 여성들은 자궁, 비뇨계, 항문 등과 관련된 질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히려 병을 키우기도 한다.

저자는 각종 여성 질환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병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질환을 도외시해 온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홀로 어둠 속에 숨어 끄끖 앓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는 책이다.

<저자 소개>

사라 라메이 (Sarah Ramey)는 음악가이자 작가이며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의 웹 사이트의 수석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연설 편집자로 활동 한 바 있다. 연설을 편집했다.

제목 : HAUNTED DATA

가제 : 데이터로 미래 여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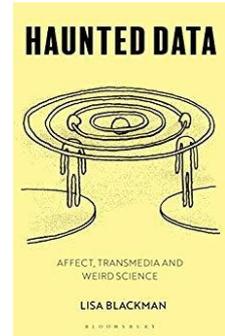
저자 : Lisa Blackman

출판사: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9년 1월 2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철학



'데이터'라는 용어는 간단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용어이다. 소프트웨어, 정보, 통계와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고 사회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용어가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흔히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 혹은 데이터라고 간주하는 것과 데이터의 문화 정치를 연구하는 것은 21세기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저자는 단순히 화폐화 혹은 수식화 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의 개념을 빌려와 데이터에 대한 한층 더 깊고 날카로운 논의를 제시한다. 저자는 디지털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촉과 트랜잭션이 미디어를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지도 않는 상태'의 단계에 이르도록 만들었는지 분석한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함께 살아가고, 상상하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 한다. 사람들은 심지어 데이터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데이터화 (datafication) 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데이터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 '데이터화'라는 용어는 데이터의 편재성과 관련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환상 둘 다를 보여주는 말이다. 즉, 데이터는 유토피아로 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구시대적 형태의 감시 체제, 독재적 권력 형태를 반복하게 만드는 디스토피아를 위해 봉사하는 하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와 맺고 있는 관계는 오류와 오해, 유령 데이터로 인해 계속 어긋나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인 오류성은 인간 사고의 본질과 정신 세계, 이성, 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논란의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트랜잭션이 어떻게 과학적 혁신의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바꾸고 있는 지 주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데리다의 유령론과 과학 및 계산 시스템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많은 인문학자들을 매료시켰던 전염, 모방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향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데이터 분야에 적용되는 영향 연구는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논쟁과 유행, 신념, 감정, 기분 상태가 어떻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지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무의식 연구 분야의 일종인 프라이밍 연구와 동물 텔레파시와의 독특한 관계, 인공 지능 및 심리 연구와의 호기심 이론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상한 과학'이

불러일으킨 논쟁을 예를 들어 현재 과학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짚어본다. 이 책은 일반 과학, 페미니스트 과학 연구, 퀴어 이론, 문화 연구 및 영향 연구 분야의 급진적 기초를 바탕으로 예술가, 철학자 및 과학자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과학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목차 소개>

제1장. 프라이밍과 네트워크 어펙트: 데이터 중재와 데이터 확산

1.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상한 과학과 미래의 성취
2. 소셜 미디어 확산: 전염 과학을 통한 프라이밍 논쟁 분석
3. 데이터 중재와 유명론 분석

제2장. 느낌이 중심이 된 미래: 미래를 중재하는 법

4. 미래를 느껴보기
5. 포르노 파일 탐색과 빅 데이터
6. 열린 과학과 양자 물질
7. 결론: 영향 이론과 미래의 성과

<저자 소개>

리사 블랙먼 (Lisa Blackman)은 영국 런던 대학교 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연구 부서의 미디어 및 문화 연구부의 교수이다. 전작인 『Immaterial Bodies: Affect, Embodiment, Mediation』을 포함 해 지금까지 총 다섯 권의 책을 발표했다.

제목 : INTRINSIC

가제 : 내재적 동기가 이끄는 삶

저자 : Sharath Jeevan

발행일: 2020년 1월 예정

분량 : 약 400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말콤 글래드웰의 책처럼 현대인들의 삶에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영감을 주는 책**

현대인들은 모두 외적 보상만 바라보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외적 보상 (extrinsic reward)’이란 심리학 용어로 ‘돈이나 특권 등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보상과 인센티브야말로 한 인간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970 년 이후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 동기 이론은 위와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돈과 보상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은 맞지만 정말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일까?

저자는 외적 보상이 아닌 내재적 동기가 우리의 삶에 다시 열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내재적 동기란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획한 삶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설정한 동기를 말한다. 이 책의 저자 사라스 지반은 우리가 이미 내재적 동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이런 생각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시험해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먼저 내재적 동기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이 다섯 가지 영역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 육아, 관계, 자기 계발, 리더십이 포함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율성을 실현 시킬 수 있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적 방해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사, 배우자, 자녀의 삶에 내재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재적 동기가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재적 동기를 좇아 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개인이 가진 직업, 경제적 지위,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한 방식이다. 내재적 동기가 이끄는 삶은 삶의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치 결혼 한 후에도 다시 배우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매일 같이 하고 있던 일을 갑자기 다시 사랑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성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직업이나 연애 상대를 찾는 방법부터 리더십 활용, 자녀 교육 방식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 상황에 내재적 동기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내재적 동기를 찾고 삶의 방식을 개선하는 여정에는 반드시 배우자, 동료,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여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동료 시민, 상사, 정치적 리더들에게까지 건강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더 이상 외부적인 요인이나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소개>

1. 머리말: 델리의 딜레마
2. 내재적인 동기와 일: 근로자에서 장인으로
3. 내재적인 동기와 자녀 양육: 헬리콥터 부모에서 낙하산 부모로
4. 내재적 동기와 재능: 다람쥐 쳇바퀴에서 바퀴로
5. 내재적 동기와 인간 관계: 상자 검수자에서 중매 점술사로
6. 내재적 동기와 리더십: 카리스마에서 배려로
7. 경제학자와 여행하기: 구시대적인 말들은 다 잊어버리기
8. 내재적 동기와 인생: 가치 있는 삶
9. 여정의 시작: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 다가올 나날들

<저자 소개>

사라스 지반 (Sharath Jeevan)은 내재적인 동기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개척자이자 저명한 전문가이다. 지반은 인도와 우간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NGO 단체인 STIR Education의 CEO이자 고든 브라운이 설립한 세계적 싱크 탱크의 교육위원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